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스 남쪽에 위치한 러시모어산에는 미국을 빛낸 4명의 대통령(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에이브러햄 링컨)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 조각상은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의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노예해방을 이끈 링컨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친숙한 얼굴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인들의 얼굴이다.

이러한 러시모어산의 석상을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 읽었던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큰 바위 얼굴’이 떠오른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고, 언젠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마을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었다. 소년 에니스트는 평생도록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을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위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년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부자, 장군,

새해의 결심, ‘큰 바위 얼굴’ 닮아가기

정치, 시인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얼굴이 되었다. 어느덧 노년기에 들어선 에니스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지역의 앞날을 이야기 하던 중, 마을 사람들은 햇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닮은 모습을 보고 에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에니스트는 자신보다 더욱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어린 시절부터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았던 에니스트는 자신이 위인이 되기보다는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실천하는 행동을 이 결과, 에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게 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매년 이맘때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한다. 올해는 ‘나’ 중심의 시각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중심, 즉 ‘우리’라는 시각으로 바꾸어 보려고 한다. ‘큰 바위 얼굴’처럼 큰 꿈은 아니지만 이타적인 삶을 통해 나와 주변이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한 해를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에니스트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야 한다. 정년퇴직자들의 재능기부, 가족이 함께 사회봉사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등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족이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그곳 어린이들과 함께 놀게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계획과 동시에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년 새롭고,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을 한두 개쯤 세울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관심을 가져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와 동료를 구해야 한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혼자 힘으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꾸준히 진영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나와 뜻이 맞는 친구, 동료, 또는 단체의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삶은 장기간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삶의 태도를 바꾸어 우리 마음속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아 가려는 소망을 품고 한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종교칼럼

소원을 이루어 가는 시간



최현열
광주 순교회 담임목사

장 특이한 점은 군인과 공무원이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것과 중학생의 경우 희망직업이 없다는 답이 41.0%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고 한다. 한 때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장래 희망은 건물주가 1위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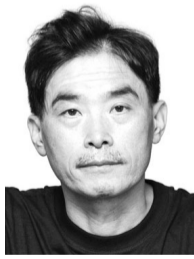
2003년에 개봉한 짐캐리 주연의 ‘브루스 울마이어’라는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한 편이다. 내가 짐캐리 배우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교 중에 예화로도 많이 사용한다. 그 영화에 보면 기발하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주인공이 신의 능력을 갖고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 소원들을 기록한 노란색 포스트잇이 순간순간 사방에 가득하게 되는데 일일이 읽고 답할 수 없어 결국 컴퓨터의 능력을 빌려 모두 ‘예스’해 버린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복권 1등 당첨인데 이 소원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수십억원의 당첨금을 바랐던 이들에게 복권 1등 당첨금이 고작 몇 천원에 불과했다.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느린 실험이 있는데 ‘피치 낙하실험’이라는 것이다. 올해로 97번째 계속되고 있는 실험이다. 피치는 석탄, 목재, 원유와 같은 유기물 질에서 추출해 점탄성을 띠는 고형의 물체이다. 쉽게

주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로 표장에 많이 쓰이는 아스팔트를 생각하면 된다. 피치 낙하 실험은 이 피치라는 물체가 고체가 아닌 점도가 엄청나게 높은 액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토머스 파벨 박사가 기획한 것이다. 1927년 시작되어 긴 기다림 끝에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기간이 무려 8년이 걸렸다. 그리고 두 번째 방울은 1947년에 떨어졌지만 파벨 박사는 두 번 다 떨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사망하여 이 실험은 멈추는 듯 했지만 1961년 존 매니스톤에 의해 다시 나오게 되었다. 2014년 아홉 번째 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이 영상에 기록되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소원이 있다. 기독교인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그 당시 순간에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으로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 낸 하나님의 소원의 결과라고 있다. 새해 소망이 더디 이루어 진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그 소원을 이루어 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말이다.

유라시아 마실가기



김현욱
탐험가
The Explorers Club 회원

로와 관련, 인프라 시설 및 물류회사와 다양한 차량 운전자들을 만났다. 이것은 모든 환경에서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와 완성도를 의미한다. ‘유라시아 마실가기’이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차를 타고 함께 바이칼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발트해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우리 어른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북극권에서 오로라를 보고 오는 일...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은가! 이러한 일이 지금 당장 가능하다. 나는 28년 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 이번 대륙횡단에 사용된 캐스퍼 경승용차(998cc)는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지구촌 과제(환경, 빈곤 등)와의 대화이다. 그동안 나에게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다는 것은 불타는 시베리아와의 만남을 의미했다. 곳곳에서 벌목과 화재로 인해 숲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 배짱’이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이다. 바이칼 호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자료화하고 러시아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3년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부 소속의 바이칼 자연보호구역센터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바이칼 자연보호구역의 책임자이자 탐험가인 바실리 수틀라체와 함께 셀렌가 강 삼각주 습지대 현장을 경험했다. 이곳에서는 바이칼 호수로 흘러드는 셀렌가 강의 오염원에 대해 자연 스스로가 정화작용을 하고 있는 놀라운 현상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지구촌 시민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경험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가상세계)를 활용한 게임과 여행차 북방 공간, ‘유라시아 콤플렉스’(Eurasia Complex)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마쳤다. 서울, 광주, 부산에서 출발해 시베리아를 거쳐 앙스테르담에 이르는 1만 4000km의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풍경들을 시각 자료화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횡단 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집했다.

시베리아는 호랑이와 곰 등의 야생이 살아 숨 쉬는 대자연이다. 유라시아 대륙은 유목민과 정주민을 아우르는 이야기의 셀 수 없이 많은 모험의 땅이다. 나는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대륙으로 연결된 길, 곧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러시아 연방 도로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다. 1966년 모터바이크로 이루어진 시베리아 단독 횡단은 최초의 기록이 되어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의 만남, 28년이라는 시간은 이야기로서의 디테일을 의미한다. 최초의 기록과 반복된 행위로 인해 대륙의 길 위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현재는 디지털 기반의 세계화 시대이다. ‘트렌스 유라시아 2023’은 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욕의 익스플로러스 클럽(The Explorers Club)에서 발표했다. 또한 대륙을 횡단할 때 베를린과 모스크바에서 방송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새해에는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길 위에서 만들어진 나의 이야기들이 세계를 상대로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도전해보려고 한다.

社說

끝내 탈당한 이낙연... ‘DJ 정신’ 말할 자격있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년간 몸담아 온 민주당을 떠났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선언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수차례 예고된 일이지만 호남을 뒷받침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고 민주당 대표와 호남 몫으로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를 역임한 지도자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는 탈당 명분으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폭력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행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깨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과 혐오의 정치로 치닫는 현재의 거대 양당제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30%에 달하는 부동층을 감안할 때 타협과 조

정의 정치가 필요한 점은 인정할 만하다. 그렇지만 누구의 말처럼 24년 동안 민주당에서 ‘꽃길만 걸어온’ 정치인이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탈당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마지막까지 탈당을 망루하고 호남지역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들이 나서 신당 창당을 규탄하는 것은 분열만은 막아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호남 지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김대중 탄신 100년의 해를 통한 민주당 분열의 해로 만들었다는 지적과 왜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않고 민주당, 호남과 싸우려 하나냐”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이 전 대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90여일 남은 22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탈당의 명분이 약한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고된 광주 ‘교통지옥’ 방관만 할 건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광주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이어 또 다른 대형 공사가 겹치면서 교통지옥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해당 지자체는 혼잡이 예상되는 공사대상 지역에 대한 교통량 측정도 실시하지 않는 등 단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시에 올해도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장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57개월 동안 계속된다. 이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원지구-운남지구-광주시청 등 20km 구간에서 공사가 이뤄지는데, 도시철도와 고속도로 확장 공사 구간이 겹치는 용봉 IC 구간, 광산 IC 구간에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문제는 예고된 교통지옥에 대해 광주시

와 각 지자체가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공사 착공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지난해 말 교통혼잡대응추진단을 꾸리고 나섰지만 운전자들이 공사 구간을 피해 몰려들게 될 이면 도로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광주 북구역시 북구청 사거리, 설죽로, 하서로, 각화동 등지의 교통 체증을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교통량 수차나 교통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말 착수에 들어간 교통 혼잡도로 개선방안 추진 용역은 오는 4월께 나올 예정이다. 광산구도 철단, 수안, 신가, 운남 등에 교통량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면 서도 별도의 교통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은 예상했던 것인데도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 유기다. 당국은 정확한 교통량을 분석해 최선의 우회 도로를 확보하고 이를 알리는 등 교통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시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12곳이 올해 문을 닫는다고 한다.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신입생 5명을 채우지 못해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한 세대가 20명(부부 10쌍)이라 한다면 다음 세대는 7명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해 ‘갓난아기 연봉 1200만원’ 시대를 열었고,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집

값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출산율 붕괴는 가속화 되고 있다. 과거에는 출산율 당연 시했다. 사회와 국가 유지 시스템의 핵심이 출산과 인구 확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크게 약화되었고, 자녀들의 부모 봉양도 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복지 제도도 상당부분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비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 견해도 있다. 사람들이 직접적 대면 없이도 쉽게 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연애나 결혼, 출산 같은 리스

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지금의 2030세대는 출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환경은 크게 좋아졌지만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기피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부부가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에는 ‘출산이 정상’이라는 입장에서 비출산율 보는 게 아니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경제적 부담과 육구를 감수해야 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현상이라는 청년세대의 생각을 이해 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출산 지원금과 남성 육아휴직 확대, 보육체계 확충, 교육비 절감,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이 꼽힌다. 누구든 아이를 낳으면 말야 키워주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 경제·교육·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파트 위주의 획일화된 주거 형태 개선과 다문화 확산 등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출산이 주는 행복을 받아들이기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 출산율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재만 편집국장 jkyou@

출산율 붕괴

Table with 4 columns: Title (光州日報),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Publisher (회장·발행인 김유정), and Editor-in-Chief (편집총괄국장 최영호).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disclaimer at the bott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